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8년 2월

교육학석사(체육교육)학위논문

청소년의 풋살 참여에 따른 자아존중감이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김 동 현

청소년의 풋살 참여에 따른 자아존중감이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School Youth's Participation in Futsal on
Self-Esteem and Persistence Intention of Participation

2018년 2월 23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김 동 현

청소년의 풋살 참여에 따른 자아존중감이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 홍 남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체육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김 동 현

김동현의 교육학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송 채 훈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 도 현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홍 남 인

2017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I. 서 론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7
3. 연구의 문제	7
4. 연구의 가설	8
5. 연구의 제한점	9
6. 용어의 정의	10
II. 이론적 배경	11
1. 자아존중감(self-esteem)	11
가. 자아존중감의 개념	11
나. 자아존중감의 특징	17
다. 자아존중감의 구성요소	18
라. 자아존중감의 기능	19
마. 자아존중감의 형성	20
바.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22
2. 참여지속의도	25
III. 연구방법	26
1. 연구대상	26
2. 연구절차	26

3. 조사도구	28
가. 설문지 구성	28
나. 설문지의 타당도	29
다. 설문지의 신뢰도	32
라. 자료분석	32
IV. 연구결과	34
1. 청소년 풋살 참여정도에 따른 자아존중감, 참여지속의도의 차이	34
가. 참여빈도에 따른 자아존중감, 참여지속의도의 차이	34
나. 참여기간에 따른 자아존중감, 참여지속의도의 차이	37
2. 풋살 참여에 따른 자아존중과 참여지속의도 간의 상관관계	41
가. 청소년 풋살 참여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참여지속의도의 상관관계	41
V. 논 의	43
VI. 결론 및 제언	48
참고문헌	51
부 록	58

표 목 차

표 1. 설문지 주요구성내용	28
표 2. 자아존중감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30
표 3. 참여지속의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31
표 4. 자아존중감, 참여지속의도 신뢰도분석	32
표 5. 참여빈도에 따른 사회적 요인의 일원변량분석 결과	35
표 6. 참여빈도에 따른 학교적 존중감 요인의 일원변량분석 결과	35
표 7. 참여빈도에 따른 총체적 존중감 요인의 일원변량분석 결과	36
표 8. 참여빈도에 따른 가족적 존중감 요인의 일원변량분석 결과	36
표 9. 참여빈도에 따른 참여지속의도 요인의 일원변량분석 결과	37
표 10. 참여기간에 따른 사회적 존중감 요인의 일원변량분석 결과	38
표 11. 참여기간에 따른 학교적 존중감 요인의 일원변량분석 결과	38
표 12. 참여기간에 따른 총체적 존중감 요인의 일원변량분석 결과	39
표 13. 참여기간에 따른 가족적 존중감 요인의 일원변량분석 결과	39
표 14. 참여기간에 따른 참여지속의도 요인의 일원변량분석 결과	40
표 15. 청소년 풋살 참여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참여지속의도 간의 상관분석 결과	41
표 16. 자아존중감과 참여지속의도 상관관계	42

그림 목 차

그림 1. 변인 설정 및 관계모형	8
그림 2. 연구절차	27

ABSTRACT

Influence of School Youth's Participation in Futsal on Self-Esteem and Persistence Intention of Participation

Kim Dong-Hyun

Advisor : Prof. Kim, Hongnam Ph.D.

Major in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72 middle school students living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The results obtained after data processing through the program and data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effect on overall esteem, which is a sub - factor of self - esteem according to frequency of adolescents' futsal participation.

Second, the frequency of adolescents' futsal participa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social esteem, which is a sub - factor of self - esteem.

Third, it showed that the frequency of adolescent futsal particip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family esteem, which is a sub - factor of self - esteem.

Fourth, there was a significant effect on school esteem, which is a sub - factor of self - esteem according to adolescent futsal participation frequency.

Fifth, there was a significant effect on total esteem, which is a sub -

factor of self – esteem according to youth futsal participation period.

Sixth, there was a significant effect on social esteem, which is a sub – factor of self – esteem according to youth futsal participation period.

Seventh, there was a significant effect on family esteem, which is a sub – factor of self – esteem according to youth futsal participation period.

Eighth, there was a significant effect on school esteem, which is a sub – factor of self – esteem according to youth futsal participation period.

Ninth, all four factors such as total esteem, social esteem, family esteem, and school esteem, which are sub – factors of self – esteem according to adolescents' participation in futsal,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articipation persistence inten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미래사회의 주인공이자 희망인 청소년은 21세기를 이끌어갈 주역으로서, 장차 국가와 사회에서 주도적 역할과 위치를 담당하게 될 중요한 자원이다(김종선, 1986). 청소년기는 인간의 자아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이고, 심리적으로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특성을 지니며 사회적으로는 기존의 사회구조에 편입되지 못하여 주변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청소년은 또한 부모와 타인의 보호와 통제로부터 탈피하여 독자적인 인격체로 인정받기를 원하며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정립하여 불안정한 생활을 안정되고 건전한 생활로 영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사춘기를 겪으며 많은 고민들을 경험하게 되고 자아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 채 주위환경에 불응하며 일탈행동을 일삼게 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비행 및 자아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청소년기를 건전하게 보낼 수 있는 주요한 매개체가 된다.

청소년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서, 무슨 문화를 호흡하며,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들이 안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른 나라에 비해 문화 공간이 적고, 입시 문제, 취업문제 등의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하지마라, 가지마라’고 붙잡고 말리는 대신에 할 것과 할 곳을 마련해 주어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가정과 사회의 책임문제가 우선적으로 지적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우리 청소년들이 세상의 어두운 면만을 보고 자라게 하지 말고, 청소년 문화공간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문화 및 체육활동을 개최하여 세상의 밝은 면을 보여 줄 수 있는 사회환경을 더욱더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전통 사회의 가치관과 서구의 가치관이 뒤섞여져 청소년들에게 큰 혼란의 난국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급격한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물질만능

주의의 가치관, 부모의 과잉보호,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의 붕괴,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환경의 영향 등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남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청소년들은 직접·간접적 경험을 통해 스스로 자아를 찾고 자신을 발전시킬 많은 기회를 박탈당하여 좁은 경험의 틀 속에 박혀 편협하고 이기적인 사고의 틀을 지니고 있다(한승희, 1995).

21세기를 들어오면서 우리는 빠르고, 편리하고 윤택함을 누리는 삶을 보편적인 삶으로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인 삶이라는 이면에는 산업화, 도시화, 소 자녀화, 핵가족화 등의 가족의 구조가 두드러지게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그에 따른 가족의 모습은 가장의 실직, 이혼 또는 별거로 인한 결손가족의 증가, 가장의 사망, 사고, 질병 등으로 가족의 해체 현상 또한 높아져 가고 있으며, 가족의 보호를 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가정내에서 보호 받기가 어려워지고, 또한 학교붕괴의 현상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지원책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복잡다기한 문화의 다양한 변화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정서는 불안정하고, 자신에 대해 일관성 있는 의식이 결여되어 혼돈의 상태로 계속 빠지고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많은 문제 행동을 초래하기도 한다. 공격적인 감정의 폭발이 늘어날 수도 있으며, 폭언이 빈번해지고 욕구불만이 증가하여 심지어 이시기의 동안의 청소년의 정서적 불안은 우울로 빠지기 쉬우며, 피곤, 심기증, 주의집중 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거나 반항, 자학적 행동, 비행행동, 사회의 부적응, 자살 등의 문제들로 표출되고 있다.

청소년기에 있어서 자아존중감 확립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서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 능력에 대한 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정의 다양한 변화의 시점에서 형성된 청소년기의 낮은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문제의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보는 연구가 많다(남정자, 1991; 문성주, 1991).

우리인간은 활동적이며 충동적인 존재라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시기의 신체적 발달은 정신적 발달과 균형의 인간 존재론적 영향에 주요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운동을 통하여 보다 좋은 성숙 및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시기의 신체 활동은 인간이 꼭 갖춰야할 특수 항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신체적 활동은 건강이상의 가치로서 사회의 문제 해결력, 사회성 발달 등 다양한 영향을 준다. 특히 입시위주의 청소년 생활에서의 신체활동은 더욱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청소년을 보는 관점과 정책에 있어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1997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을 미성숙한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여 비행이나 범죄를 예방하는 선도·보호정책으로 일관하거나 청소년을 ‘미래의 주역’으로만 간주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독립된 인격체’임을 간과하였다. 이로 인해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을 정책의 대상으로만 여김으로써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스스로의 활동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했었다(문화관광부, 1998).

그러나 1998년 리스본에서 열린 세계청소년장관회의 개최사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 사회를 전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청소년들의 희망과 에너지요, 열정과 실험정신이다”라며 모든 세대는 아이들이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준비하도록 준비시켜야 하는 신성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였고, 이 회의에 참석한 우리 정부도 대표 연설에서 “청소년은 사회변화와 경제적 발전, 그리고 기술혁명을 위한 핵심적 주체일 뿐만 아니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인적자원이며, 그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인식하고, 그들에게 국가적·세계적 수준의 정책 형성·집행·평가과정에 참여할 많은 기회들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정부의 청소년에 대한 발상이 크게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육성 5년 계획(2003~2007)」에서는 청소년을 중요한 사회변화의 근원으로 인식하여 청소년의 자율활동과 참여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선정하였다(문화관광부, 2009).

이와 같이 청소년에 대한 인식변화는 그 동안 사회적으로 경계하거나 금기 시 하던 청소년의 집단활동과 자율적인 참여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청소년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풋살(Futsal)은 포르투갈어의 축구를 의미하는 'FUTbol' 또는 'FUTebol'과 '실내'를 의미하는 프랑스어의 'SALon' 또는 포르투갈어의 'SALa'를 합성으로서 1930년 후안 까를로스 세리아니에 의해 창안되었으며 국내에 들어와서는 생활체육동호회의 프로그램으로 널리 보급되고 있다.

FIFA에서는 1987년에 풋살 대회를 채택하여, 1989년 네덜란드에서 제1회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하고, 1992년에는 홍콩에서, 1996년에는 스페인에서 2회, 3회 대회를 개최하였다. 1회~3회 대회까지의 우승국은 브라질이 모두 우승컵을 거머주었다. 제1회 아시아 풋살대회에서는 1999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이란이 우승하였으며, 2000년 5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 풋살대회에서도 역시 이란이 우승하였다. 또한 제4회 FIFA 세계 풋살 선수권대회가 각 대륙에서 예선을 통과한 16개국이 참가하여 2000년 11월 과테말라에서 열렸으며, 유럽지역 대표로 나온 스페인이 우승을 차지하였다.

풋살은 국내에 들어와서 레크리에이션 형태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회원들 및 동호회의 적극적 보급에 따라 연합회가 창립되었다. 1996년 강원도 홍천에 풋살타운이 처음 세워졌으며, 1999년 국민생활체육전국풋살연합회가 창립되면서 동시에 제1회 회장기 전국풋살대회가 개최되었고, 2002년 2월 대한풋살협회가 발대식을 갖고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16개 도시에서 10개의 연합회가 결성, 6,000여개의 클럽동호회와 20여만명이 활동 중이다.

실내 축구의 국제적인 형태로서 풋살은 세계 2,500만 이상의 선수들이 경기에 참여하고 있으며, 5명이 실내에서 하는 축구경기로서 농구 코트장 규격에서 경기를 하며, 풋살 경기장 바닥으로는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가 사용된다. 다른 실내 축구 경기처럼 값비싼 계기판을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이고도 안전한 스포츠 종목이라고 할 수 있다. 탁월한 개인적 기술과 순발력, 빠른 판단력, 정교한 패스, 협력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실정이다.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신이 능력이 있고, 중요하며 또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하며 Cutright(1992)은 자아존중감이란 '개개인이 자신에게 생각하는 능력이 있고, 인생살이에서 만나게 되는 기본적인 역경에 맞서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며, 또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고,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주장할 자격이 있으며,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또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이란 것을 '자신에 대해 갖는 태도 속에 나타나는 자신에 대한 가치의 판단'이라고 정의 내렸다. 그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은 아동기에 상당한 발달을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등학교 입학 후인 7-8세 정도에 이르면 사회적 비교 능력이 넓혀지게 되고 한번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 속에서도 거의 항상적으로 유지된다고 하였다. 이런 것을 비추어 볼 때 학교생활속에서의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형성 및 인생의 과제수행에도 많은 영향을 본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기에는 자아존중감 형성이 아주 주요한 영향을 준다는 견해를 볼 수 있겠다. 결국 학교생활속에서 만족은 청소년기의 발달에 있어서 아주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의 형성 및 또래집단의 온전한 관계형성을 위하여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활동이 매우 주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 할 수 있겠다.

최근 들어서 교육계에서도 교육적 환경 및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강건한 자아를 찾는 데 관심과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사회적 적응적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신 교육적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비추어 청소년들의 적성 및 소질개발향상, 올바른 인성발달 및 함양,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능력 함양, 공동체적인 의식, 강인한 정신력 함양 그리고 미래사회에 대한 적응 및 대응력을 기르는데 필요한 해결책 및 조직력, 사회갈등관리력 등과 같은 고차원적인 사회능력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학생들의 자율적 학습 및 동아리, 단체활동 등에 대해 크나큰 관심을 증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가정환경, 교우관계, 학교적응에 따른 고민을 얻고 있다. 이러한 양상속에서 청소년들은 부적응적 양상을 보이며 비행 및 일탈이라는 현

상을 일삼게 되고, 일부 비행행동을 표현화하지 않은 청소년일지라도 진로문제, 학업문제, 교우문제 등으로 많은 고민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의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더 나아가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을 위한 자발적 집단 활동이 요구된다. 즉, 이러한 측면에 놓인 청소년들은 취미나 특기, 방과 후 활동 등을 통해 비슷한 또래 중심의 동료집단에 소속되어 사회적 인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올바른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비행행동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들은 이와 같은 자발적 집단활동의 경험을 통해 소속감을 얻고, 자기 자신과 공동체와의 긴밀한 연관성을 이해하며 동료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동료의식, 화합, 협동정신을 체험함으로써 하나의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적응해 가는데 주요한 기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그들이 갖는 심리적 불안감과 소속감을 해소하고, 건전한 인격형성의 발달과 함께 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자아존중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관련하여 곽지영(2009)의 ‘중학생의 스포츠 활동 참가와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이현영(2004)의 ‘중학생의 스포츠 활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허충(2004)의 ‘댄스포츠 참여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이명운(2010)의 ‘방과 후 신체활동 참여와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에 관한 연구’ 등의 많은 연구가 이뤄졌다. 또 청소년이 풋살 참여를 통하여 풋살 참여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을 참여지속의도로 말할 수 있다. 참여지속의도는 운동에 직접 참여하고 그 활동을 규칙적(Regular)으로 행하는 것으로 운동에 대한 집착 또는 지속, 운동빈도, 운동강도, 운동시간 등이 포함된 꾸준한 운동참여를 의미하고 (Dishman, 1988), 풋살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풋살에 직접 참여하고 그 활동을 정규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운동에 대한 집착 또는 지속과 운동 참여자가 운동에 제약을 주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도 운동을 계속 지속할 의도를 의미한다 (안지훈,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풋살의 참여를 통한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앞으로의 참

여지속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양한 이론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활용하여 다른 여러 체육복지서비스에 접목시켜 세부적이면서 구체적인 그리고 확실한 근거가 뒷받침 될 수 있는 다양하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 추가로 다른 자아존중감과 참여지속의도와 관련된 연구 자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적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풋살의 참여를 통한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앞으로의 참여지속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양한 이론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활용하여 다른 여러 체육복지서비스에 접목시켜 세부적이면서 구체적인 그리고 확실한 근거가 뒷받침 될 수 있는 다양하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 추가로 다른 자아존중감과 참여지속의도와 관련된 연구 자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적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3. 연구의 문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청소년 풋살 참여빈도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참여지속의도의 차이
- 둘째, 청소년 풋살 참여기간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참여지속의도의 차이
- 셋째, 청소년 풋살 참여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참여지속의도와의 상관관계

4. 연구의 가설

본 연구는 청소년의 풋살 참여가 자아존중감이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독립변인으로 참여정도에 있어 참여빈도, 참여기간, 매개변인으로 자아존중감 그리고 종속변인으로 참여지속의도를 설정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으로는 총체적 존중감, 사회적 존중감, 가족적 존중감, 학교적 존중감으로 설정하였고 참여지속의도의 변인은 단일변인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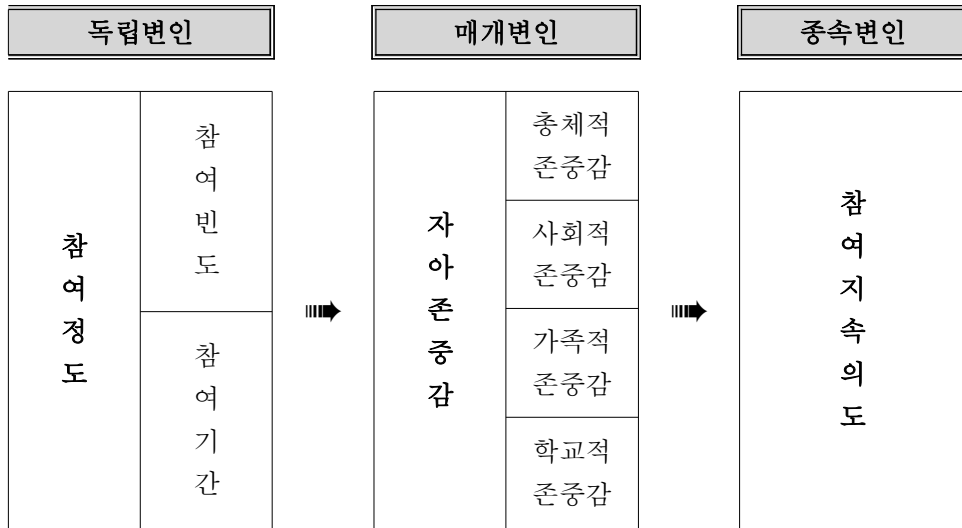


그림 1. 변인 설정 및 관계모형

가설 I. 참여빈도에 따른 자아존중감, 참여지속의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 -1. 참여빈도에 따라 총체적 존중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 -2. 참여빈도에 따라 사회적 존중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 -3. 참여빈도에 따라 가족적 존중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 -4. 참여빈도에 따라 학교적 존중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 -5. 참여빈도에 따라 참여지속의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 참여기간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참여지속의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1. 참여기간에 따라 총체적 존중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2. 참여기간에 따라 사회적 존중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3. 참여기간에 따라 가족적 존중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4. 참여기간에 따라 학교적 존중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5. 참여기간에 따라 참여지속의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I. 풋살 참여정도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참여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청소년의 풋살 참여가 자아존중감 및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풋살 활동 외에 일반적 체육활동, 개인적인 활동이 자아존중감 및 학교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통제하지 못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성별의 설정은 풋살의 특성상 남자로만 구성되어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의 목적을 규명하기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측정도구는 설문지로서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사용하였으며, 개인적 및 사적인 감정의 주관적 문답은 제한을 두었다.

6. 용어의 정의

가. 자아존중감

개인이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로 믿고 느끼는가의 주관적, 포괄적, 총체적이며, 그리고 자신에 관하여 긍정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정도를 말한다.

나. 참여지속의도

참여지속의도란 개인이 직접 참여하고 그 활동을 정기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참여에 대한 집착 또는 지속을 의미하고 참가율이라 한다(김영재, 2001).

II. 이론적 배경

1. 자아존중감(self-esteem)

가. 자아존중감의 개념

우리 인간의 인격형성은 가정, 학교, 사회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인간관계에서의 심리적 건강과 안정의 기초를 추구 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아 존중감의 형성은 특히 가정과 교육내의 구성원에 의해 가장 영향을 받으며 또한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즉,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아 개념의 정의적 측면으로 자신이 갖고 있다고 보는 자질에 부여하는 가치이다. 자아 인식이나 자아에 대한 정의와 달리 자아존중감은 자아에 대한 평가적 속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인 평가를 기초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 스스로 내리는 평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존재로 보는 견해라고 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다양한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고 설명하며, 예언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성격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매우 광범위한 연구주제로 학자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자아개념, 자신감, 자기효능감, 자기지각 등 여러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자아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William James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후에 자아존중감은 주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나 자기의 가치에 대한 감정으로 정의되었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평가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 중 어느 하나에만 비중을 둔 것 과 두 요소 모두를 고려한 것으로 구분된다. 평가에 비중을 두면 자신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자아존중감 수준이 결정되며 감정에 비중을 두면 자신을 수용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정도에 따라 자아존중감 수준이 결정된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적응 및 건강한 성격발달과 자아실현에 중요한 요소로서 인간의 행동, 감정, 동기, 성취 및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친다. Maslow는 자아존중감의 욕구가 충족되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가치 있고, 자신감 있고, 능력 있으며, 유능하고, 필요한 사람으로 느끼며 이러한 욕구가 좌절되면 열등하고, 나약하고, 무력하게 느낀다고 하였다(조현춘, 조현재, 문지혜 공역, 2002).

자아존중감은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부모나 교사, 친구 등 중요 타인들의 평가와 자기 행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 등을 통해 형성되어 간다.

자아존중감을 정의 할 때 평가적 요소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

Gilmore (1974)는 ‘타인과의 비교 또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 수용, 승인하는 정도’라고 보았다. Rosenberg(1965)는 ‘내적기준이나 기대에 따라 자신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평가적 요소보다 감정적 요소에 더 비중을 둔 정의도 있다. Branden(1969)은 자아존중감을 ‘자기 신뢰와 자기 존경의 융화, 즉, 자신이 가지는 생의 가치와 유능성에 대한 확신’이라고 정의하였다. Long, Henderson, Ziller(1968)는 ‘타인과 비교해 자신에게 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치나 중요성’으로 정의하였다.

평가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 둘 다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Coopersmith (1967)는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이 자신에 대해 내리는 평가로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태도를 나타내며 또한 자신을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 있다고 믿는 정도’라고 하였다. 즉,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태도에서 나타나는 자신에 대한 가치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명백한 표현적인 행동에 의해 기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주관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전통적인 연구에서는 대부분 단일차원에서 자아존중감을 연구하였다. 즉, 총체적으로 자신을 가치 있게 보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최근에는 자아존중감을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대두되고 있다. 총체적 자아존중감으로는 인간의 자아평가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자아

존중감을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보면 개인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Coopersmith(1967)는 자아개념은 전반적인 자상을 의미하는 일반적 자아, 친구와의 사회적 관계를 알아보는 사회적 자아, 학교와 학습에 대한 지각을 알아보는 학교에서의 자아, 가정생활에서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인정되고 있으며 부모님과 가족들과 얼마나 원만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가정에서의 자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의 세 가지 특징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아존중감은 일시적이고 세부적이기 보다는 자신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경험, 성, 연령, 역할에 따라 변화 될 수 있다. 셋째, 자기 평가란 개인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 능력, 속성 등을 평정하는 것이다.

자아존중감은 내·외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주변 환경이 개인을 수용하고 지지할 때 자아존중감을 확립하고 안정을 이룰 수 있다. 또한 개인의 행동과 적응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으로는 인생의 전(全)단계에서 행복도와 생활만족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등 인간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학업성적·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정신건강의 결정적 지수가 되기도 한다. 자아존중감은 다음과 같이 학자에 따라 다양한 의미와 광의적인 의미를 가진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개념을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사회심리학자인 Cooley와 Mead는 반영이론(Reflection Theory)으로 자아존중감의 발달을 설명하였는데, Cooley는 개인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산물로 타인의 반응에 반영되어 자신의 행위를 봄으로 자신에 대해 알게 된다는 면경자아(the looking glass of self)의 개념을 전개하였다. Mead는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과정은 주위사람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거쳐 발달하게 되며 그중에서도 부모, 교사, 동료와 같은 중요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중요한 타인(주로 부모)이 자신을 중요하다고 가치 있게 평가한다고 지각할 때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반대로 열등하게 평가한다고 지각할 때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즉, 중요한 타인인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변인이라고 보았다.

Gorden은“자신의 잠재적 행동과 중요한 타인의 평가를 반영한 개개인의 평가지향”리라고 정의했고, Newman은 자아존중감을“자신의 능력 및 사회적 수용의 두 가지 경험에 대한 자기평가의 결과”라고 정의했다. 즉,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 속에 표현되는 개인적인 가치의 판단이며 자아의 평가차원이다.

Atwater는“자아존중감이란 스스로를 가치있다고 생각해주고 존중해주는 자신에 대한 태도로서 자신의 성취와 타인에 의한 대우 및 자신의 신체적 특성과 같은 모든 종류의 영향력에 의해 형성되는 개인적 가치감”이라고 정의했다.

James, Elkind와 Weiner는 자아존중감이“개인이 스스로에 대해 인정하는 가치이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성공을 기대하는 정도로 성취의 차원에서 자아존중감”을 설명했다(이효정, 2002;17-18, 재인용).

Rosenberg(1965, 1979)는 자아존중감을 하나의 특별한 객체 즉, 자아에 대한 긍정, 부정적인 태도로써 정의하고,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느끼는 가치로운 것, 현존하는 자신은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존하지 않은 자신에 관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신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며, 자존중감의 수준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보다 자아 거부, 자아멸시, 부정적인 자아평가를 암시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감, 지도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했으며 이상은 높으나 실패를 두려워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Branden(1992)은 자아존중감에 대해서 자신에게 생각하는 능력이 있고 삶의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기본적인 역경에 맞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고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주장할 자격이 있으며,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결과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행복해 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자기가 본 자아에 대한 견해가 긍정적이며 자신감을 갖고 최고를 향한 가치 추구를 해 나가는 사람들은 창의적인 느낌을 가지며 열정 때문에 동기가 유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강한 사람은 성취보다는 자신

이 노력했다는 자체가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며, 실패는 성장과 학습을 위한 기회로 본다. 그리고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 남을 감동시켜야 한다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해 주기를 바라며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람마다 왜곡과 편견이 자기지각의 과정에 작용하게 된다. 그리스 철학자인 에피테투스(Stoic)는 “사람은 사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물을 보는 과정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다”는 주장을 하였다(김준식, 2004). 그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그 자체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보다는 이들 사건에 대하여 생각하는 방식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사물을 보는 방식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열등감, 부적절함, 불행감, 무가치함 등의 부적절한 정서를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정서는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져다준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단점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비난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 이러한 사람은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구체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만, 자신이 전체적으로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지닌 사람은 자신이 여러 분야에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자아존중감은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된 원인이 된다.

Burns(1993)는 자아존중감에 이르는 단계는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단계는 조건적 자아존중감이다. 조건적 자아존중감이란 “~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는 것이다. 가령, 나는 신으로부터 받은 재능과 노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므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둘째 단계는 무조건적 자아존중감이다. 무조건적 자아존중감 단계에 이르면 자신이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다. 연민과 지지를 획득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인간으로서 타고난 자신의 가치를 자꾸 저울질하는 경향을 중단한다.

위에서 살펴본 여러 학자들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정의를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제시된 것을 소개하면, 김성태(1985)는 자신이 어떤 유형의 인가이며 남들이 관심을 갖는 특징을 얼마나 지녔는가는 자기개념과 관련이 되며, 자기 평가나 판단 또는 자기에 대한 감정적인 측면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경연(1987)은 자아존중감을 ‘자신이 지각한 자신의 여러 속성들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적, 감정적 태도’라고 정의하였으며, 송현중(1993)은 자아존중감의 심리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과 구분되는 개념이고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결과를 포함하며 이러한 평가결과는 정서적인 반응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조원성(1996)은 자아존중감을 ‘개인이 자기 자신의 지적·정의적·신체적 특성에 대하여 갖고 있는 주관적인 가치판단 또는 평가에 관련된 것으로서 자산에 대한 존경의 정도와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정도’로서 정의하였다.

송인섭(1996)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기술하였다.

첫째,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다. 따라서 모든 감정과 태도를 자유로이 경험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근성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성격의 어떤 면도 차단하지 않는다.

둘째,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현실에 대한 실존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 모든 경험은 이전의 경험과는 상관없이 항상 새롭고 신선하게 느껴진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모든 경험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아는 끊임없이 모든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새롭게 된다.

셋째,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갖는다. 즉 어떤 행동이 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느껴 질 때, 그 행동은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넷째,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선택과 행동에 많은 자유를 누린다. 이런 사람은 삶에 대한 자신의 주도권을 즐기며, 미래에는 과거의 사건이나 변화무쌍한 환경변화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믿는다.

다섯째,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창조적인 사고를 한다. 이들은 사회적 요

구에 순응하거나 수동적인 적응을 피하는 대신 새로운 자극과 도전을 추구하는 삶을 즐기며 창조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학자마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해 내리는 평가와 타인이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에 대한 자신의 수용과 존경의 정도라 정의할 수 있으며, 또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성격을 강조하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보는 긍정적인 평가 차원으로서 지속성이 있는 개인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바란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삶은 무엇보다 가치 있고, 자신을 존중할 때 비로소 자신의 중요성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느끼게 된다.

나. 자아존중감의 특징

자아존중감이 높은 이들은 수행결과를 자신의 능력과 좋은 자질에 더 관련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또 자신을 매우 훌륭하게 평가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그대로 수용하여 자신의 인간적인 약점을 잘 인내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든 생활을 가치 있고 보람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 있게 행동하기 때문에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함과 아울러 진취적이고도 활력 있는 삶을 전개하게 된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쓸모없고 무가치하며 약하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학대하고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 즉, 자아부정, 자아불만족 및 자아경멸에 이르게 되므로 불안한 심리 상태와 소극적인 생활태도를 갖게 된다(Rosenberg & Rosenberg, 1978).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이 자기에게 동의하지 않을 때라도 당황하지 않으며, 실패할 때라도 변명하지 않는다. 타인들을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대우하며 타인들의 복지에 공헌하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시도한다.

다. 자아존중감의 구성요소

자아존중감은 평가적 차원의 개념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의 실체로 존재하는지 또는 여러 요소로 이루어져서 수행하는 과제나 당면한 상황에 따라 변화할 것인지를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는 대체로 두가지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감정 상태나 인지적인 추상적 개념으로 보는 입장으로 ‘총체적인 자아존중감’(global self-esteem)이라하고, 다른 하나는 자아존중감이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 보다 복잡한 인지적 요인과 미분화된 정서적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김춘례, 1992).

점점 후자의 입장이 대두되고 있어 자아존중감의 구성 요인을 밝히는데 크게 정서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rikson은 자아존중감 또는 자기 가치감에 영향을 미치는 생의 초기의 정서적인 경험을 강조했고, Rosenberg는 가치감(worthness)이 자아존중감의 기본이 되고, 또 성인기에 가서 자신과 세계를 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Waston과 Clark은 긍정적인 정서 상태와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경험하는 정도에 있어 개인차가 있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정서나 감정상태를 경험하는 성향과 긍정적인 정서나 감정 상태를 경험하는 성향을 구별해야 한다고 했다(김춘례, 1992).

인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자신의 신념 체계(belief system)를 발달시키면서 특정한 자기상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총체적인 자아존중감과 관계가 있다. 특정한 자기상은 특정 차원에서의 자기 평가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자기 효능감의 평가, 도덕적 차원에서의 가치평가, 힘과 통제간의 평가, 사회적 수용의 평가 등이 해당된다. 인지적 요인을 구성하는 것들로써 속성 중요성(attribute importance), 확신감, 실제적인 자기와 이상적인 자기와의 불일치 등이 있다. Marsh는 자아존중감의 구성요소를 결합하는 것보다 분리하는 것이 자아존중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김춘례, 1992). 자아존중감에 대한 두 가지 접근은 측정상의 문제와 직결된다. 입장에 따라서 자아존중감의 정

도를 알아보는데 상이한 측정 방법을 사용한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총체적인 지표, 그리고 후자의 입장에서는 특정 평가에 적합한 자료를 사용한다.

William은 전인적인 자기 평가란 특정한 자기 평가의 결과라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요소는 더 중요하고 중심적이며, 다른 요소는 국부적이고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이 때 중심 요소가 전반적인 자기평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그 속성에 부여한 중요성이 총체적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자기상에 대한 확신도 또한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한편으로는 특정 차원의 자기 평가를 더 강조하기도 하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총체적 자아존중감을 강조하기도 한다(신관호, 1996).

자아존중감을 총체적인 입장으로 보는데 많은 반론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행복감이나 우울감 등의 정서에 대해 전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아존중감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라. 자아존중감의 기능

자아존중감이 높은 이들은 수행결과를 자신의 능력과 좋은 자질에 더 관련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또 자신을 매우 훌륭하게 평가한다고 주장한다. 또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자신의 인간적인 약점을 잘 인내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든 생활을 가치 있고 보람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 있게 행동하기 때문에 원만한 사회 생활을 영위함과 아울러 진취적이고도 활력있는 삶을 전개하게 된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쓸모없고 무가치하며 약하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학대하고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 즉, 자아부정(Self-negation), 자아불만족(Self-dissatisfaction) 및 자아경멸(Self-contempt)에 이르게 되므로 불안한 심리 상태와 소극적 생활태도를 갖게 된다(Rosenberg, 1979).

Reasoner(1982)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비교하면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수용하며 타인의 능력과 자신의 능

력을 잘 인식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주위 환경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소속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여 성취감이 높으며 자신감이 있고 자기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안다는 것이다. 또한 목적감과 미래에 대한 이상으로 동기화되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위의 자료를 잘 이용하는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여 모험을 하는 일이 적고 타인에 대해 필요 없는 신경을 쓰며, 의존심이 많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지 못한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이 자기에게 동의하지 않을 때라도 당황하지 않으며, 실패할 때라도 변명하지 않는다. 타인들을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대우하며 타인들의 복지에 공헌하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여 부끄러워하거나 지나치게 자기의식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자아존중감의 특징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자기가 가치있고 보람있는 삶을 영위한다고 생각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게 된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가 치에 대해 회의적이며, 자기를 무가치한 인물로 보며 자주 불안을 느끼고 우울해지며 불행하다고 느낀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확신을 느끼지 못하며 행동도 불안정하고 소극적이다.

마. 자아존중감의 형성

자아존중감 형성에 관한 Rosenberg의 견해를 살펴보면 네 가지 원리에 의해 형성 되어진 다고 설명하고 있다.

첫째, 주위 인물들로부터의 반응과 평가를 통해 자신에 관한 지식과 태도를 획득해 간다는 반영된 평가과정이다. 사회학적 자아이론으로 James, Cooley, Mead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자아획득 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상호작용 경험의 역할을 중시하였다. 즉, 지적이며 이 성적인 행동을 이해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역할을 맡아 할 수 있거나 자신을 대상 대상으로 보는 능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은 상징작용, 특히 언어를 통하여 가능해진다는 것이

다. 인간은 언어의 사용 및 경험 성숙에 의해 자신에 대한 타인의 역할이나 자신의 내적 표상에 맞는 타인들의 역할을 해 낼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하여 자신에 대한 타인의 태도를 알 수 있게 되며, 결과적으로 일반화된 타인으로서의 자아가 발달된다고 주장하였다(김경연, 1987).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의식을 바탕으로 주변의 타인과 관계-상호작용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주위 인물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매리고 비교의 결과에 따라 자신의 다음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는 사회적 비교과정이다. 즉, 사회적 비교라 함은 Festinger의 고전적인 사회적 비교이론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개인이 주위의 준거타인 또는 준거집단에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평가적 결론을 내리는 작업을 의미한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범주와 다른 사람이 속한 사회적 범주를 서로 비교하게 됨으로써 자신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셋째, 심리적 중심성이다. 자아존중감의 각 요소들(지능, 도덕심, 친절, 사회적 지위 등)은 단순히 집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아존중감 내의 각 요소가 지니는 상대적 중요성이 자아존중감 형성에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어떤 요소는 개인의 관심사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반면에 어떤 요소는 주변적 역할에 머물게 되는데, 인간의 인지구조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요소가 그 사람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더 크게 기여한다고 하였다.

넷째, 주위에 대한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관찰함으로써 자신에 대해 알게 되고 자신의 역량 또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자아귀인 과정이다. 자아귀인은 Bem이 소개하고 Bandura가 정교화시킨 개념으로 자기에 대한 지식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효과를 직접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도출해 낸다는 주장이다. 즉, 이 원리는 귀인이론(attributive theory)과도 관계가 있다. 즉 자아귀인이란 자신의 행위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를 관찰하고서 이 현상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결국 자신의 성향에 관해 결론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바.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돕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태인, 1995).

1) 개인적 요인

자아존중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인 요인들로 지금까지 유의하다고 검증된 것은 신체영상, 학업성취능력, 지능, 언어발달수준, 형제 수, 연령, 성별, 신체적 조건, 지적 능력의 차이, IQ 등이 있다. 그리고 자아존중감 형성에 저해가 되는 개인적 요인들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개인적인 실패 뒤에 오는 좌절감이다. 특히 친구관계에서 실패한 경험이나 다른 사람과 학업 성적을 비교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개인적 결함, 좌절감, 자신감 결여, 자기 비하, 외로움 등이 낮은 자아존중감을 야기 시키는 것이다.

2) 친구관계 요인

친구관계가 다른 어느 시기보다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형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른 누가 지지하는 것보다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인정했을 때, 자아존중감 향상의 효과가 크다.

비슷한 연령의 친구관계는 청소년기 행동의 기준과 모범이 되고, 사회적 압력으로도 작용하면서 인간의 사회 및 성격발달에 가장 중요한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청소년 각자가 자기를 스스로 수용함은 물론, 타인으로부터의 수용과 인정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윤진, 1993). 즉 청소년들의 자기 평가 기준의 많은 부분은 친구 관계라는 환경과 개인 간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며, 친구관계는 청소년시기에 자아존중감 발달을 위한 기본적인 장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친구 관계와의 만족스러운 경험은 자아존중감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친구관계에서의 소외 혹은 고립을 경험하는 청소년은 자신에 대한 궁극적 가치인 자아존중

감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된다. 그리고 자아 평가는 친구들이 제공하는 자아존중감의 내면적 경험이며, 우정은 개인에게 수용받는다느 느낌과 따뜻함, 인정받는다느 느낌을 제공하고 친구는 소속감과 이해, 원조, 피드백 등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확신을 준다.

청소년들의 친구관계는 대체로 학교 동료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 환경에 포함되어 고려되기도 한다. 학교 환경 가운데서 친구관계와 관련된 것들, 즉 친구와의 불만족스러운 관계, 이성 친구와의 부적절한 교제 등은 개인의 자아존중감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3) 가족관계 요인

청소년에게 있어서 가족관계는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그 중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매우 핵심적인 결정요인이라는 견해는 학자들 사이에서 일관성이 있게 보고 되는 동시에 받아들여지고 있다.

Mistry, Vandewater, Huston, & McLloyd(2002)등은 부모의 정서적인 보호가 자아존중감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고, Maccoby 과 Martin(1983)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Waterman (1981)은 자아 존중감의 발달 과정에 선행 될 수 있는 조건에 가족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 대해 무관심했을 때 자녀들의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자아존중의 결정 요인은 부모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인정 정도, 허용 행동의 명백한 한계, 개인의 행동에 대한 존중과 관용도, 부도, 허용 행동의 명백한 한계, 개인의 행동에 대한 존중과 관용도, 부모의 높은 자아존중감 등의 조합이다. 또한 부모의 별거, 이혼, 질병, 경제적 압박, 부모 자녀간의 갈등, 부모 중 어느 한 쪽의 부재, 실직이나 사망 등과 같은 가족 구조적 특징은 자아 존중감의 형성을 방해하는 요소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도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낮은 사회 경제적 계층은 부정적 자아상을 반영한다.

반면, 한인미(1984)는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정 경제 수준별 상, 하위 집단 간에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없었다고 보고하였고, 다른 연구에서는 낮은 사회 경제적 계층의 학생들이 중류계층 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을 수 있다고 하여 가정의 사회 계층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 것이라는 명제를 반증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가정환경을 보다 좋게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Coopersmith(1967)는 성장하는 개인이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가치 있는 객체로서 자신을 보게끔 하기 위하여 부모의 인정, 존중하는 대우, 한계를 명확히 하는 일 등 세 가지 조건을 열거하였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부모로서의 긍정적인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4) 학교생활 요인

학교생활 요인은 가족관계 요인 다음으로 자아존중감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자아존중감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학교생활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로써는 학업부진, 친구와의 불만족스러운 관계, 교사와의 갈등, 이성 친구와의 부적절한 교제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교사의 자아존중감과 교수방법, 피드백,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학교생활의 전반적 분위기, 교풍 등도 학교생활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자아가 확산되지 않도록 학교정책의 배려와 교수방법의 개선 등 교육적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2. 참여지속의도

경험하는 지속적인 스포츠 참여 의도에 대한 설명과 예측에 관한 연구는 스포츠 사회학·여가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대상이 되어 왔다(오지현, 2015). 참여지속의도는 개인이 다양한 형태의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운동에 대한 집착이나 지속을 의미하고 스포츠 참가를 말하며 참가율이라고도 불린다(정영린, 2003).

오늘날 여가의 시간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여가활동 참여에 관심이 높아짐으로써, 지속적 참여의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스포츠는 모든 사람이 일정하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만이 스포츠를 선호하고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오지현, 2015).

스포츠 참여 활동의 지속적인 참여행동은 과거나 현재가 아닌 미래에도 해당 스포츠를 지속적으로 참여 할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지속적인 참여의도를 나타내거나 반대로 참여의도가 감소되는 경우가 있다(이대로, 2011).

스포츠 참가는 빈도, 기간, 강도와 같은 참가의 정도에 따라 일상적 참가, 주기적 참가, 일탈적 참가, 포기 혹은 비 참가로 구분하여 스포츠 참가의 일반적인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Kenyon & Schutz, 1970).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 풋살 참여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규명하는데 있으며,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대상, 조사도구,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의 과정을 통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에 재학중이고, 풋살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을 유층집락무선표집법(st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할 것이다. 표본 추출은 광주지역에서 중학교를 무선 배정하여 1, 2, 3학년으로 구분하여 총 300명 정도를 표집 하였다.

표집된 300명 정도의 설문지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할 자료로 판단되거나 자료내용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설문지 28명은 제외 하였다.

2.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세 차례에 걸쳐 예비검사(pilot study)를 통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첫 번째,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아존중감 및 참여지속의도에 관련된 문헌조사와 선행연구의 구성타당도가 적합하게 추출된 요인을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하위요인을 재구성하였다.

두 번째, 본 연구의 조사는 중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본 연구의 개요를 설명한 후 중학생 50명에게 예비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시 유의할 사항과 질문의

목적 및 내용을 설명한 뒤, 조사 대상자에게 설문 내용의 의미가 통하지 않거나 이해가 어려운 문항을 지적하도록 요구하였다.

세 번째, 신뢰도 검증을 거쳐 설문지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본 연구에 알맞은 설문지 되도록 작성하였고, 회수된 설문지는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을 통하여 연구의 가설을 검정할 것이며, 본 연구의 설문지(questionnaire)를 직접 배포한 후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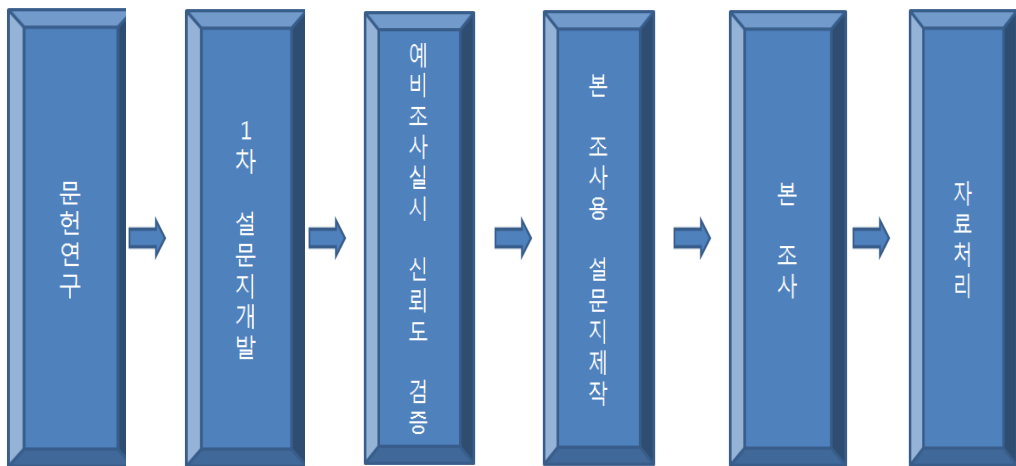


그림 2. 연구절차

3. 조사도구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한 설문지법을 사용할 계획이며, 설문지는 신뢰도 검사를 통해 신뢰도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문항들은 제거할 것이다.

가.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 가설을 검증하고자 사용할 설문지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하여 인구통계학적 참여정도 2문항, 자아존중감 24문항, 참여지속의도 6문항으로 총 32문항을 구성하였다.

<표 1> 설문지 주요 구성내용

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수	선행연구
참여정도	참여빈도 참여기간	2문항	
자아존중감	총체적 존중감 (6) 사회적 존중감 (6) 학교적 존중감 (6) 가족적 존중감 (6)	24문항	김대옥(2000) 윤성옥(2006) 구아름(2013)
참여지속의도	참여지속의도 (6)	6문항	Duda, Nicholls(1989) 이원현(2010) 정현우(2017)
총 문항 수		32문항	

설문지의 구체적 구성지표와 내용은 <표 1>과 같으며 자아존중감 및 참여지속의도에 관한 설문 문항은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은 Likert 5단계 척도를 사용하여 가장 긍정적인 응답은 5점, 가장 부정적인 응답은 1점으로 배점할 것이다.

1)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김대옥(2000), 윤성옥(2006), 구아름(2013)등이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총체적 존중감, 사회적 존중감, 학교적 존중감, 가족적 존중감 이상 하위 4개의 영역으로 <표 1>과 같이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지의 응답형태 측정은 Likert-type 5단계 척도이다. 응답내용에 따라“매우 그렇지 않다”에 1점“매우 그렇다”에 5점으로 순차적으로 부과 되어있다.

2) 참여지속의도

본 연구에서의 측정도구는 Duda와 Nicholls(1989)가 개발한 참여지속의도 측정도구는 이원현(2010)에 의해 분석 되었던‘생활체육참여자의 참여동기와 만족 및 참여지속의도의 관계’에 사용한 설문지를 수정 및 보완한 정현우(2017)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표 1>과 같이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지의 응답형태 측정은 Likert-type 5단계 척도이다. 응답내용에 따라‘매우 그렇지 않다’에 1점‘매우 그렇다’에 5점으로 순차적으로 부과 되어있다.

나. 설문지의 타당도

설문지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광주 중학생을 대상으로 소수인원인 50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Pilot Test)를 실시한 설문지를 토대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하여 KMO(Kaiser-Meyer-Olkin measure)값과 유의도를 분석하여 최대우도법과 베리맥스 집교회전 방식을 통하여 요인들의 해석을 용이하도록 하였다.

1) 자아존중감

질문지의 적합성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자아존중감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문항	요인	요인 I	요인 II	요인 III	요인 IV
문항 10		.883	.183	.282	.059
문항 11		.876	-.018	.194	-.027
문항 09		.835	.003	.041	.023
문항 08		.805	.313	.297	.191
문항 07		.787	.240	.451	.032
문항 24		-.072	.874	.129	.173
문항 22		.284	.762	-.011	.218
문항 23		.081	.746	-.080	-.107
문항 19		.287	.736	.237	-.057
문항 20		-.183	.714	.204	.047
문항 21		.406	.688	-.050	-.193
문항 02		.109	.119	.828	.132
문항 05		.191	-.083	.778	.066
문항 06		.398	-.121	.756	.031
문항 01		.068	.326	.729	.134
문항 03		.394	.197	.638	.011
문항 15		.083	-.041	-.036	.899
문항 16		-.089	.022	.035	.791
문항 14		.389	-.023	-.140	.757
문항 17		.002	.071	.251	.749
문항 18		-.073	.067	.429	.714
요인명		사회적존중감	학교적존중감	총체적존중감	가족적존중감
고유치		6.882	3.249	2.927	2.073
분산%		32.771	15.470	13.939	9.873
누적분산%		32.771	48.241	62.180	72.053

KMO= .607, Bartlett`s test: 5745.585, p<.001

2) 참여지속의도

질문지의 적합성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와 같다.

<표 3> 참여지속의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문항	요인	요인 I
문항 26		.937
문항 30		.924
문항 28		.875
문항 29		.867
문항 25		.832
문항 27		.820
요인명		참여지속의도
고유치		4.614
분산%		76.902
누적분산%		76.902

KMO= .849, Bartlett`s test: 1654.082, p<.001

다. 설문지의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다음의 <표 4>과 같다.

<표 4> 자아존중감, 참여지속의도 신뢰도분석

변 인	요인명 (문항수)	Cronbach's Alpha
자아존중감	사회적 존중감 (5)	.937
	학교적 존중감 (6)	.924
	총체적 존중감 (5)	.875
	가족적 존중감 (5)	.867
참여지속의도	참여지속의도 (6)	.936

라.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300명의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량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분석 대상에서 28부를 제외시키고 분석 가능한 자료를 코딩한 후, SPSS/Win v.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 처리하였고, 자료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분석 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타당성검증을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동일한 집단으로 분리된 요인들의 신뢰성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

하였다.

둘째, 가설검증은 변수들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사후검정(Sheffe)을 실시하였다.

셋째, 청소년 풋살 참여빈도와 자아존중감, 참여지속의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 풋살 참여기간과 자아존중감, 참여지속의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할 것이다.

다섯째, 청소년 풋살 참여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참여지속의도의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할 것이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풋살 참여에 따른 자아존중감이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설정된 가설을 중심으로 첫째, 참여빈도에 따른 자아존중감, 참여지속의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둘째, 참여기간에 따른 자아존중감이 및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셋째, 청소년 풋살 참여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참여지속의도에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풋살 참여정도에 따른 자아존중감, 참여지속의도의 차이

가. 참여빈도에 따른 자아존중감, 참여지속의도의 차이

참여빈도에 따른 자아존중감, 참여지속의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참여빈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참여빈도(주1회 이하, 주2~3회, 주4~5회, 주6회 이상)에 따른 자아존중감(사회적, 학교적, 총체적, 가족적, 참여지속의도)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집단 간의 지도자 신뢰의 차이를 산술적으로 제시해 주는 집단별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 및 사후검증(Post Hoc Multiple Comparisons)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참여빈도에 따른 사회적 존중감 요인의 차이

참여빈도에 따라 사회적 존중감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참여빈도는 사회적 존중감에 있어서 $F=13.894$ 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빈도(주1회, 주2~3회, 주4~5회, 주6회이상)에 따라 사회적 존중감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참여빈도는 사회적 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5. 참여빈도에 따른 사회적 요인의 일원변량분석 결과

변산원	자승합	df	평균자승	F값	유의도
집단간	136.000	16	8.500	13.894	.000
집단내	156.000	255	.612		
전 체	292.000	271			

나) 참여빈도에 따른 학교적 존중감 요인의 차이

참여빈도에 따라 학교적 존중감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참여빈도는 학교적 존중감에 있어서 $F=18.552$ 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빈도(주1회, 주2~3회, 주4~5회, 주6회이상)에 따라 학교적 존중감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참여빈도는 학교적 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6> 참여빈도에 따른 학교적 존중감 요인의 일원변량분석 결과

변산원	자승합	df	평균자승	F값	유의도
집단간	157.067	16	9.817	18.552	.000
집단내	134.933	255	.529		
전 체	292.000	271			

다) 참여빈도에 따른 총체적 존중감 요인의 차이

참여빈도에 따라 총체적 존중감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참여빈도는 총체적 존중감에 있어서 $F=11.867$ 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빈도(주1회, 주2~3회, 주4~5회, 주6회이상)에 따라 총체적 존중감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참여빈도는 총체적 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7> 참여빈도에 따른 총체적 존중감 요인의 일원변량분석 결과

변산원	자승합	df	평균자승	F값	유의도
집단간	130.533	11	11.867	19.108	.000
집단내	161.467	260	.621		
전 체	292.000	271			

라) 참여빈도에 따른 가족적 존중감 요인의 차이

참여빈도에 따라 가족적 존중감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참여빈도는 가족적 존중감에 있어서 $F=11.369$ 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빈도(주1회, 주2~3회, 주4~5회, 주6회이상)에 따라 가족적 존중감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참여빈도는 가족적 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8> 참여빈도에 따른 가족적 존중감 요인의 일원변량분석 결과

변산원	자승합	df	평균자승	F값	유의도
집단간	94.838	11	8.622	11.369	.000
집단내	197.162	260	.758		
전 체	292.000	271			

2) 참여빈도에 따른 참여지속의도의 차이

참여빈도에 따라 참여지속의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9>와 같다.

참여빈도는 참여지속의도에 있어서 $F=16.810$ 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빈도(주1회, 주2~3회, 주4~5회, 주6회 이상)에 따라 참여지속의도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참여빈도는 참여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9> 참여빈도에 따른 참여지속의도 요인의 일원변량분석 결과

변산원	자승합	df	평균자승	F값	유의도
집단간	67.238	4	16.810	19.968	.000
집단내	224.762	267	.842		
전 체	292.000	271			

나. 참여기간에 따른 자아존중감, 참여지속의도의 차이

참여기간에 따른 자아존중감, 참여지속의도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참여기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참여기간(6개월이하, 6개월~1년미만, 1년~3년미만, 3년~5년미만, 5년이상)에 따른 자아존중감(사회적, 학교적, 총체적, 가족적, 참여지속의도)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집단 간의 지도자 신뢰의 차이를 산술적으로 제시해 주는 집단별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 및 사후검증(Post Hoc Multiple Comparisons)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참여기간에 따른 사회적 존중감 요인의 차이

참여기간에 따라 사회적 존중감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참여기간은 사회적 존중감에 있어서 $F=8.235$ 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기간(6개월이하, 6개월~1년미만, 1년~3년미만, 3년~5년미만, 5년이상)에 따라 사회적 존중감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참여빈도는 사회적 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0> 참여기간에 따른 사회적 존중감 요인의 일원변량분석 결과

변산원	자승합	df	평균자승	F값	유의도
집단간	131.765	16	8.235	18.103	.000
집단내	116.000	255	.455		
전 체	247.765	271			

나) 참여기간에 따른 학교적 존중감 요인의 차이

참여기간에 따라 학교적 존중감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11>과 같다.

참여기간은 학교적 존중감에 있어서 $F=6.584$ 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기간(6개월이하, 6개월~1년미만, 1년~3년미만, 3년~5년미만, 5년이상)에 따라 학교적 존중감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참여빈도는 학교적 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1> 참여기간에 따른 학교적 존중감 요인의 일원변량분석 결과

변산원	자승합	df	평균자승	F값	유의도
집단간	72.431	16	4.527	6.584	.000
집단내	175.333	255	.688		
전 체	247.765	271			

다) 참여기간에 따른 총체적 존중감 요인의 차이

참여기간에 따라 총체적 존중감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12>와 같다.

참여기간은 총체적 존중감에 있어서 $F=16.148$ 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기간(6개월이하, 6개월~1년미만, 1년~3년미만, 3년~5년미만, 5년이상)에 따라 총체적 존중감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참여빈도는 총체적 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2> 참여기간에 따른 총체적 존중감 요인의 일원변량분석 결과

변산원	자승합	df	평균자승	F값	유의도
집단간	100.565	11	9.142	16.148	.000
집단내	147.200	260	.566		
전 체	247.765	271			

라) 참여기간에 따른 가족적 존중감 요인의 차이

참여기간에 따라 가족적 존중감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13>과 같다.

참여기간은 가족적 존중감에 있어서 $F=6.808$ 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기간(6개월이하, 6개월~1년미만, 1년~3년미만, 3년~5년미만, 5년이상)에 따라 가족적 존중감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참여빈도는 가족적 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3> 참여기간에 따른 가족적 존중감 요인의 일원변량분석 결과

변산원	자승합	df	평균자승	F값	유의도
집단간	55.403	11	5.037	6.808	.000
집단내	192.362	260	.740		
전 체	247.765	271			

2) 참여기간에 따른 참여지속의도의 차이

참여기간에 따라 참여지속의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14>와 같다

참여기간은 참여지속의도에 있어서 $F=15.846$ 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기간(6개월이하, 6개월~1년미만, 1년~3년미만, 3년~5년미만, 5년이상)에 따라 참여지속의도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참여빈도는 참여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4> 참여기간에 따른 참여지속의도 요인의 일원변량분석 결과

변산원	자승합	df	평균자승	F값	유의도
집단간	63.384	4	15.846	22.946	.000
집단내	184.381	267	.691		
전 체	247.765	271			

2. 풋살 참여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참여지속의도 간의 상관관계

가. 청소년 풋살 참여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참여지속의도의 상관관계

청소년 풋살참여에 따른 자아존중감이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정된 변인을 중심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사전단계로 관련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청소년 풋살 참여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참여지속의도 간의 상관분석 결과

	사회적	학교적	총체적	가족적	참여지속의도
사회적	1				
학교적	.334**	1			
총체적	.556**	.236**	1		
가족적	.173**	.069	.235**	1	
참여지속의도	.296**	.388**	-.044	-.144*	1

*** $p < .001$ ** $p < .01$ * $p < .05$

1) 청소년 풋살 참여에 따른 자아존중감이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존중감, 학교적 존중감, 총체적 존중감, 가족적 존중감이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1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적 존중감($t = -4.284^{***}$), 학교적적 존중감($t = -5.867^{***}$), 총체적 존중감($t = 3.401^{***}$), 가족적 존중감($t = -2.224^{***}$) 이상 4가지 요인을 높게 인식할수록 참여지속의도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6> 자아존중감과 참여지속의도 상관관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SE			
(상수)	5.554	.224		24.771	.000
사회적	-.169	.039	-.228	-4.284	.000
학교적	-.203	.035	-.336	-5.867	.000
총체적	.160	.047	.224	3.401	.001
가족적	-.100	.045	-.124	-2.224	.027

R=.473, R²=.224, R*²=.212 F=19.226, p=.000

종속변수 = 참여지속의도

*** $p < .001$, ** $p < .01$, * $p < .05$

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풋살 참여를 대상으로 하여 자아존중감이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있다. 따라서 청소년 풋살참여에 따른 자아존중감이 참여지속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1. 청소년 풋살 참여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가. 참여빈도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참여 빈도에 따라서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존중감, 학교적 존중감, 총체적 존중감, 가족적 존중감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지속의도 또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참여빈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유의한 차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이는 현재와 시대에 들어와 중학교 청소년들은 남과 비교되는 줄세우기식의 평가와 절차,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특성과 학업적인 스트레스와 더불어 신체적인 활동 시간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아존중감은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부모나 교사, 친구 등 중요 타인들의 평가와 자기 행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 등을 통해 형성되어 가고(구아름, 2013), Maslow는 자아존중감의 욕구가 충족되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가치 있고, 자신감 있고, 능력 있으며, 유능하고, 필요한 사람으로 느끼며 이러한 욕구가 좌절되면 열등하고, 나약하고, 무력하게 느낀다고 하였다(조현춘, 조현재, 문지혜, 공역, 2002). 이러한 부분에 있어 청소년들은 신체적인 활동 즉, 주 단위의 풋살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존중감으로는

비슷한 연령의 친구관계는 청소년기 행동의 모범이 되고, 사회적 압력으로도 작용하면서 인간의 사회 및 성격발달에 가장 중요한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청소년 각자가 자기를 스스로 수용함은 물론, 타인으로부터의 수용과 인정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윤진, 1993)는 것이다. 또 가족적 존중감에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무관심했을 때 자녀들의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자아존중의 결정요인은 부모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인정 정도, 허용 행동의 명백한 한계, 개인의 행동에 대한 존중과 관용도, 부모, 허용 행동의 명백한 한계, 개인의 행동에 대한 존중과 관용도, 부모의 높은 자아존중감 등의 조합이고(구아름, 2013), 풋살이라는 스포츠의 특성상 개인이 아닌 팀, 즉 하나의 집단으로서 가족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며, 팀의 응집력이 강할수록 그 집단에 대한 참여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강성구(2000)의 연구에서도 지속적인 수영프로그램의 참여는 비만청소년들의 긴장감, 우울감 등을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최현태(2007)의 연구결과에서도 스포츠활동의 참여빈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두 번째, 풋살 참여빈도에 따른 참여지속의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참여빈도가 높을수록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풋살참여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풋살에 대해 자신이 몰랐던 부분을 알아가면서 만족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더욱더 많은 정보와 팀의 응집력 또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참여하려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스포츠에 참가할 때 스포츠맨이 취하는 행위로 받아들이며, 스포츠맨에게 기대되는 행위를 스포츠맨십으로 정의하고 있고(황유미,2007), 최홍찬(2015)의 연구결과에서도 팀을 위해 배려하고 동료들과 협력하며, 게임을 할 때 심판을 존중할 줄 아는 정신 등이 깃들여져 조직생활에도 긍정적인 역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고 본다. 더불어 이러한 행동들이 축구 동호회에 지속적 참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나. 참여기간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참여 기간에 따라서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존중감, 학교적 존중감, 총체적 존중감, 가족적 존중감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지속의도 또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참여기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유의한 차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이는 풋살 참여에 있어서 짧은 간격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이고 장기간으로 풋살에 참여할 때 더욱 자아존중감의 4가지 요인인 사회적 존중감, 개인적 존중감, 총체적 존중감, 가족적 존중감은 자기 스스로가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인해 목적을 가지고 그 활동에 보다 더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며,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사고와 함께 자신이 해온 행동과 계획에 있어서 결과 즉, 사회적, 가족적, 총체적, 개인적 존중감의 효과를 경험하며 자아존중감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Rosenberg, Rosenberg(1978)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이들은 수행결과를 자신의 능력과 좋은 자질에 더 관련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또 자신을 매우 훌륭하게 평가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그대로 수용하여 자신의 인간적인 약점을 잘 인내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든 생활을 가치 있고 보람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 있게 행동하기 때문에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함과 아울러 진취적이고도 활력 있는 삶을 전개하게 된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쓸모없고 무가치하며 약하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확대하고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 즉, 자아부정, 자아불만족 및 자아경멸에 이르게 되므로 불안한 심리 상태와 소극적인 생활태도를 갖게 된다고 하였고, 태권도 수련이 남녀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의 차이를 연구한 김국일(2004)연구와 태권도 수련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박은주(1998)연구에서 기간이 길수록 자아존중감 높게 나타나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으며 운동기간이 길어질수록 자기 자신의 중요성과 자신감이 향상 즉, 자아존중감의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청소년 풋살 참여에 따른 참여지속의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풋살이라는 운동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계기로 인하여 풋살을 알게 되어 재미와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게 되고, 조금 더 풋살이라는 운동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며, 장기간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얻어지는 것들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양명환(2004)은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초보자들은 참여동기로서 건강혜택을 들지만 오랜 시간 참여한 사람들은 운동으로부터의 즐거움을 운동지속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하였고, 정은이(2007)의 연구결과 또한 댄스스포츠 참가자의 참여빈도별 참여지속의도는 참여빈도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를 간접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2. 청소년의 풋살 참여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참여지속의도의 상관 관계

가. 청소년 풋살 참여정도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참여지속의도의 상관관계 분석

청소년 풋살 참여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4개요인인 사회적 존중감, 총체적 존중감, 학교적 존중감, 가족적 존중감 모두 참여지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 중에서도 특히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무한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기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신체활동이나 스포츠 체육활동은 개인으로서의 다양한 측면들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풋살이라는 스포츠 참여를 통해서 자아존중감이 형성이 되고, 자기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존경심과 집단 및 상대방과 같은 타인에게 그리고 가족이나 교사에게까지 형성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안순자(1997)의 연구에서도 집단경험을 통한 소속감 및 개인으로부터 중요한 존재로서의 인정을 받는 것은 자아존중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 발달과 자아실현에도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고, Coopersmith(1967)도 자아존중감은 개개인의 환경에서 중요한 타자들, 즉 부모, 교사, 친구들의 태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에 관련하여 풋살 참여를 통한 참여지속의도 요인은 청소년들이 풋살이라는 스포츠를 통해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형성 및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풋살 참여에 지속적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또 다른 자신만의 자아존중감을 찾아내거나 기존의 자아존중감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보다 성숙해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권기일(2013)연구에서도 스포츠를 통한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생활에 만족하고 지속적인 운동참여로의 욕구가 생기게 되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박병국(2004)의 참여기간이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와 일치하며, 김영미(2010)의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풋살을 참여할 수 있도록 체육대회 종목으로 선정하거나 특별활동을 적극 장려하여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본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풋살 참여를 통해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의 형성이 되고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이 되며 풋살의 참여를 규칙적, 반복적, 지속적인 그리고 장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또한 풋살이라는 종목 이외 다른 스포츠 및 체육활동의 참여에도 스스로가 재미, 흥미, 동기부여가 등의 자아존중감은 충분히 형성될 수 있고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서 참여지속의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 풋살 참여에 따른 자아존중감이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청소년 풋살 참여빈도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참여지속의도의 차이. 둘째, 청소년 풋살 참여기간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참여지속의도의 차이. 셋째, 청소년 풋살 참여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참여지속의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광주광역시 중학생들을 선정하여, 유층집락무선표집법(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을 이용하여 총 300명을 표본 추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조사내용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자료 28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72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참여정도 2문항, 자아존중감 24문항, 참여지속의도 6문항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 풋살 참여에 따른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김대옥(2000), 윤성욱(2006), 구아름(2013)등이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회적 존중감, 총체적 존중감, 학교적 존중감, 가족적 존중감이상 하위 4개의 영역으로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지의 응답형태 측정은 Likert-type 5단계 척도이다. 응답내용에 따라 “매우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으로 순차적으로 부과 되어있다.

참여지속의도 문항은 Duda와 Nicholls(1989)가 개발한 참여지속의도 측정도구는 이원현(2010)에 의해 분석 되었던 ‘생활체육참여자의 참여동기와 만족 및 참여지속의도의 관계’에 사용한 검사지를 수정 및 보완한 정현우(2017)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지의 응답형태 측정은 Likert-type 5단계 척도이다. 응답내용에 따라

‘매우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으로 순차적으로 부과 되어 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연구문제에 따라 빈도분석, 일원분산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의 통계방법을 활용하였다. 이상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분석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청소년 풋살 참여빈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총체적 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 풋살 참여빈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 풋살 참여빈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가족적 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 풋살 참여빈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학교적 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청소년 풋살 참여기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총체적 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청소년 풋살 참여기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청소년 풋살 참여기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가족적 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청소년 풋살 참여기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학교적 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청소년 풋살 참여정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총체적 존중감, 사회적 존중감, 가족적 존중감, 학교적 존중감 이상 4가지 요인 모두 참여지속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제 언

청소년 풋살 참여에 따른 자아존중감이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계획하고, 진행과정 및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바탕으로 차후에 있을 후속 연구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의 중학생들을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27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에는 문제가 따를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대상의 표집을 학년 또는 연령별로 충분히 수집하여 이에 다른 차이를 밝혀내는 연구가 추가로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변인으로 자아존중감 관련 4개의 변인, 참여지속의도의 연구변인으로 구성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보다 넓고 다차원적인 변인을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할 경우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연구의 변인을 보완한 후속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하여 풋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종목분야의 스포츠 및 체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아존중감을 접목시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명해야 할 것이며 양적 연구방법과 더불어 직접 관찰하고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의 방법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강성구(1999). 수영 프로그램이 비만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사례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경상북도교육연수원(1998). 학생 생활·의식 실태조사. 경상북도교육연수원.
- 곽지영(2009). 중학생의 스포츠활동 참가와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학사전편찬위원회(1992). 교육학대사전. 서울: 교육출판공사.
- 교육학사전편찬위원회(1995). 교육학대사전. 서울: 대한교육연합회.
- 구아름(2013). 청소년의 풋살 참여가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권기일(2013). 국민체력 100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재미요인이 심리적 행복감, 생활
 만족, 운동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스포츠문화대학원.
- 김경연(1987). 부모의 아동평가, 자아존중,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국일(2004). 태권도 수련이 남·여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의 차이 연구.
 경희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관희(1997).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대욱(2000). 초등학생의 체육활동 참가가 자아유능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경(2000).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그 결정요인. 아주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병성(1983). 학교 학습풍토: 그 접근과 분석. 한국교육. 한국교육개발원. pp67-82.
- 김성태(1985). 발달심리학. 서울 : 법무사.
- 김영재(2001). 여가 스포츠 지속행동 모형의 타당화 검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중앙

- 대학교 대학원.
- 김중선(1986). 청소년의 여가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청소년 사회체육. 서울: 한국 사회체육진흥회.
- 김준식(2004).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혜(1998). 청소년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지지체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춘례(1992). 자아존중감에 따른 통제소재와 학업성취에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치조(1993). 여가 활동으로서의 스포츠 활동 참여와 스포츠 활동 만족도, 직무만족 및 생활만족의 공변량 구조분석.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 논문집. 14-2, pp 85-100.
- 김태균(2008). 청소년의 인라인스케이팅 참여가 학교생활만족과 생활유형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체육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하나(2007).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가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체육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남정자(1991). 청소년 비행의 유형과 그 사회, 심리적 관련 요인 분석. 세종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류동훈(1999). 초등학교 학생의 스포츠 활동 참여와 학교생활 만족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윤석(1996). 고등학교 운동선수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선모(1984). 중학생의 배경적 특성에 따른 학교적응. 경상대학교논문집. 23(1), pp 295-301.
- 문성주(1991). Reasoner의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학교상담전공.
- 문화관광부(1998). 청소년 백서.

- 문화관광부(2009). 청소년 육성 5개년 수립연구.
- 민영순(1978). 발달심리학. 서울: 교육출판사.
- 민영순(1987). 교육심리학. 서울: 문음사.
- 박병국(2004).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가 학교생활적응 및 자아성취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1, 633-644
- 박봉모(2009). 중학교 축구 학교스포츠클럽 참여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 차이.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석사학위논문.
- 박용현(1986). 교육사회학. 서울: 교육출판사.
- 박은주(1998). 태권도 수련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배수기(2008). 중학교 유도수련 참여가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체육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송인섭(1996). 자아개념의 교육심리학적 의미. 교육심리연구. 10권 1호. 한국교육심리학회.
- 송현중(1993).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귀인모형의 인과적 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신관호(1996). 아동의 신체존중감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차이.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영복(1984). 정서 및 부적응 행동의 특성과 관계변인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재근(1996). 노인의 스포츠 참여와 생활 만족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명환(2004). 직장인들의 운동 참여동기, 참여수준 및 지속의도간의 관계. 한국체육교육학회지, 8(4), 197-215.
- 예종이(1994). 체육원리신강. 서울: 형성출판사.
- 유상구(2000). 체육수업과 여가활동의 연계시도가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성욱(2006). 초등학생의 주말체육활동 참여가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 영향.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진(1984). 우정관계의 본질과 발전단계에 따른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Vol. 2. No. 1. pp 94~113.
- 윤진(1993). 청소년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방향. 청소년학연구. 제1권 1호. pp 17-26.
- 이갑수(1994). 가정 주부의 스포츠활동 참여와 생활만족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돈희(1981). 교육학용어사전. 서울교육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편.
- 이명운(2010). 방과 후 신체활동 참여와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에 관한 연구. 상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사회체육학과 체육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이종길(1992). 사회 체육활동과 생활만족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철화(1995). 도시 기혼 여성의 스포츠 활동 참여 동기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태인(1995).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사회사업의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영(2004) 중학생의 스포츠 활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2002).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 실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효정(2002). 전자게임이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총신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신국(2002). 대안학교 고교생과 일반계 고교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비교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진우(1997). 어린이의 스포츠 참여와 스포츠 참여 장애. 한국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원성(1996).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이(2007). 댄스스포츠 참가자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참여동기와 참여지속

- 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조중현(1984). 고교생의 학교생활 적응문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현춘, 조현재, 문지혜 공역(2002). 성격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주현정(1998). 고등학교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소(2003).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현대(2007). 초등학생의 스포츠활동에 따른 자기신체평가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한국체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홍찬(2015). 국내 축구 동호인들의 스포츠맨십이 조직 시민행동 및 지속적 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교육개발원(2005).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한동교(1975). 학생이 기대하는 교사상.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승희(1995). 지역사회봉사활동. 한국청소년연구. 제20호.
- 황유미(2007). 청소년 배드민턴 선수들의 스포츠맨십 분석.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인미(1984). 고등학생들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주희(2000). 인간관계 집단 상담이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종순(1996). 고등학교 운동선수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충(2004). 댄스스포츠 참여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진숙(1995). 교사의 역할에 따라 선호되는 특성과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randen, N.(1969). The psychology of self-esteem; A new concept of man's psychological nature. Los Angeles: Nash Pub. Corporation.
- Branden, N.(1992). The power of self-esteem. 강승역(역)(1995). 나를 존중하는 삶. 서울 : 학지사.
- Brookover, Wilbur B, Erickson, Edsel L.,(1975). Sociology of education. Homewood, III; Dorsey Press, 414p.
- Burns, D. D.(1993). Ten days to self-esteem. William Morrow & Co., Inc.
- Campbell, A.(1976). Identification and Measurement of Levels and Standards of Living. Journal of Home Economics, 57(1), 4.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francisco: W.H. Freeman and Co.
- Cutright, M. C.(1992). "Self-Esteem: The Key to a Child's Success and Happiness." PTA Today 17 (4): 5-6.
- George, L. K.,(1979). The Impact of Personality and Social Status Factors upon Levels of Activ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Gerontology, 33(1), 6.
- Gilmore, J, V.(1974). The Productive Personality. Albion-Pub. Company.
- Hartub, W. W(1978). Issues in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London: Methuem. 130-170.
- Jakson(1968). Life in Classroom.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e. Inc.
- Long, B. H, Henderson, E. H, & Ziller, R. C.(1968). Developmental changes in the self-concept during middle childhood. Merrill-Palmer Quarterly.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P. H.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pp. 1-101) (Fourth Edition, Vol. 4).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Mistry, R. S., Vandewater, E. A., Huston, A. C., & McLloyd, V. C. (2002). Econ

omicwell-being and children's social adjustment: The role of family process in an ethnically diverse low-income sample. *Child Development*, 73, 935-951.

Reasoner, R.W.(1982). *Building Self-Esteem*, Calif.: CPP.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senberg, F., & Rosenberg, M. (1978). Self-esteem and delinquenc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7, 279-291.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 Basic Books.

Waterman, A. S.(1981). Individualism and Interdependence. *The American Psychologist*, 36(7), 762-773.

국민생활체육 전국풋살연합회 <http://www.futsal.or.kr/>

대한풋살협회 <http://www.koreafutsal.or.kr/>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한국풋살연맹 <http://www.k-futsal.or.kr/>

<부 록>

청소년의 풋살 활동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발달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설문 응답에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청소년의 풋살 활동이 자아존중감 및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 될 것입니다. 아래의 문항들은 답이 없습니다.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답 해주시면 됩니다. 이 설문지는 연구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겁니다. 정성껏 하나하나 대답해 주시면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사용하여 학교 체육 관련 스포츠클럽 및 자유학기제 및 생활체육 풋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김 동 현

I. 다음은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에 해당하는 번호를 괄호에 기입 및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풋살 참여 활동을 한 주에 몇 회 정도 참여하십니까?

- ① 1회 이하 ② 2 ~ 3회 ③ 4 ~ 5회 ④ 6회 이상

2. 귀하께서 풋살 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 ① 6개월 이하 ② 6개월~1년 미만 ③ 1년~3년 미만
 ④ 3년~5년 미만 ⑤ 5년 이상

II. 다음의 문항들은 자존감에 관한 문항입니다.

자세히 읽으시고 해당 항목에 또는 표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한 번 결심한 것은 바꾸지 않고 밀고 나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주저하지 않고 결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문제는 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나의 자신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의 자신에 대해 매우 만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 또래의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친구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9	누구든지 나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남을 재미있게 해 주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남에게 좋은 친구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부모님은 내 기분을 잘 맞추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집에서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 가족은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학교에서 실망하는 일들이 가끔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학교생활이 즐겁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학교에서 가끔 화가 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선생님은 나를 착하지 않는 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학교 성적이 실망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학교에서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의 문항들은 참여지속의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자세히 읽으시고 해당 항목에 ○ 또는 ✓ 표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풋살 참여를 계속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풋살 참여는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몸이 피곤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풋살 참여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풋살 참여를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불편한 상황에 개의치 않고 풋살 참여를 지속적으로 참여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시간만 있으면 평소에도 풋살 참여 를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